

2015년 봄 학기
전시간 훈련을 위한 메시지 개요

전체 주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의 생활

메시지 10

그 영에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보고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음으로 왕국 생활을 삶

성경: 마 7:1-12, 18:1-35

- I.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12절은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원칙에 관한 것이며 왕국 백성에 대한 하늘에 속한 다스림은 그들이 영에 따라 다른 이들을 돌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을 계시한다 — 비교 사 9:8-9.
- A. 왕국의 하늘에 속한 다스림 아래 겸손한 영 안에서 생활하는 왕국 백성은 항상 다른 이들이 아니라 그들 자신을 판단한다 — 마 7:1.
1.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의로 판단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의로 판단받을 것이다(마 7:2).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긍휼로 판단한다면, 우리도 주님께 긍휼로 판단받을 것이다. 긍휼은 판단(심판)을 이긴다 — 약 2:13.
 2.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다루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거절하고 그들을 고려하며 그들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 우리의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반드시 우리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생각나게 해야 한다 — 마 7:3.
 3. 우리의 눈 속에 들보가 남아있다면, 우리는 시각이 흐려져서 분명하게 볼 수 없다 — 마 7:4-5.
- B. 우리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우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진주를 발로 짓밟고 돌아서서 우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 마 7:6.
1.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객관적인 진리를 가리키고, '여러분의 진주'는 우리의 주관적인 체험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하다.
 2. 개는 발굽이 없고 되새김질도 하지 않는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둘 다 더럽다 — 레 11:27, 7, 비교 행 10:1-15, 28.
 3. 베드로후서 2장 12절, 19절부터 22절까지와 빌립보서 3장 2절의 계시에 따르면, 마태복음 7장 6절의 개와 돼지는 종교적이지만 깨끗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리킨다.
 4.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소중한 체험들에 관해 말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우리가 교통하려고 하는 것을 받을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인식하고 분별해야 한다.
- C. 우리가 사람들을 접촉하며 그들을 대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들을 접촉하기 위한 합당한 방법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한다 — 마 7:7-8, 딤후전 5:1-2.
1. 구하는 것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찾는 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간구하는 것이며, 두드리는 것은 가장 친밀하고도 진지하게 요구하는 것이다.
 2. 왕국 백성이 다른 사람들을 접촉하는 최상의 길은 왕국에 따르며 그 영에 따른 것이다 — 마 7:9-12, 비교 눅 11:13.
 3.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모든 이들을 먹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영 안에 체현된 풍성들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 마 7:1-13.
 4.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 안으로 그리스도를 공급하기 위해 십자가를 통하여 그 영에 의해 모든 것을 하기를 배워야 한다 — 비교 대하 1:10.
- II. 왕국 생활, 하나님-사람의 생활, 교회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하며 어떤 믿는 이도 무시하지 말고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며 우리의 형제를 용서해야 한다 — 마 18:1-35, 5:48, 7:13-14, 롬 14:17.

- A. 왕국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하며 어린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 마 18:2-4.
- B. 왕국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결코 다른 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야 하며 실족하게 하는 일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 마 18:5-9, 비교 11:6.
- C. 왕국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심지어 작은 믿는 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 마 18:10-14.
- D. 왕국 생활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형제를 제한없이 용서해야 한다 — 마 18:21-35.
 - 1. 우리는 반드시 죄를 지은 형제를 일흔 번씩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 마 18:21-22.
 - 2.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
 - a. 주님에게 진 우리의 빛을 갚는 것은 불가능하다 — 마 18:23-26.
 - b. 주님은 그분과 우리의 교통을 복원시키시기 위해 우리의 패배한 그리스도인 생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빛들을 용서하셨다 — 마 18:27.
 - c. 다른 이들이 우리에게 지은 빛은 우리가 주님께 지은 빛에 비하면 매우 작다 — 마 18:28.
 - d.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다른 형제들을 슬프게 할 것이고 그들이 이 문제를 주님께 가지고 갈 것이다 — 마 18:28-31.
 - e. 만일 우리가 오늘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오는 시대에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 받지 못할 것이다 — 마 18:32-35, 비교 막 11:25-26.

III.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 안에 다섯 가지 종류의 용서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고 깨달아야 한다.

- A.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영원한 용서가 있다 — 이것은 생명에 속한 문제와 관련된다.
 - 1. 우리의 구원과 함께 오는 용서는 영원한 용서이다
 - 2. 일단 우리가 용서를 받으면 우리는 영원히 용서를 받는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받았으며 우리는 영원히 의롭게 되었다 — 눅 24:47, 롬 4:7-8, 시 103:12.
 - 3.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은 순간 우리의 모든 죄들은 용서받았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제거하셨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죄의 흔적도 남지 않았다 — 행 10:43, 히 8:12.
- B.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수단적인 용서가 있다 — 이것은 교회와 관련된다.
 - 1. 주님은 그분의 교회에 성령을 보내시면서 이 땅에서 교회가 그분의 대표가 되도록 명하셨다. 용서는 이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 — 요 20:22-23.
 - 2. 수단적인 용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용서를 선포하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갓 구원을 받아서 용서의 의미를 모른다면 교회의 대표가 일어나서 그에게 "당신은 오늘 주님을 영접하셨습니다 — 주님이 당신의 죄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좋다.
- C.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복원하는 용서가 있다 — 이것은 교통과 관련된다.
 - 1. 우리가 일상 생활 가운데 죄를 지으면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유죄판결하며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은 중단된다 — 행 24:16, 딤후 1:5, 딤후 1:3, 9.
 - 2.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결코 바뀔 수 없지만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을 손상시킬 수 있다. 우리가 교통 안에서 용서를 받는 것을 확고히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들과 불법들을 자백해야 한다 — 요일 1:7, 9, 2:1-2.
 - 3. 만일 우리가 우리의 형제들에게 죄를 범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들에게도 자백을 해야 한다 — 마 5:23-24.
 - 4. 우리는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최악된 행위들을 거저없이 인식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교통은 복원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은 구원의 기쁨으로 충만될 것이다 — 시 51:12, 잠 15:13 상, 17:22 상, 15:15 하.
 - 5. 그리스도인 생활의 비결은 하나님과 우리의 끊임없는 교통을 유지하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며 하나님과 가졌던 달콤한 교통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 — 요일 1:9.
- D.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통치적인 용서가 있다 — 이것은 징계와 관련된다.

1. 이러한 종류의 용서는 하나님의 안배, 주권, 징계, 손을 포함한다. 하나님의 통치는 그분이 일을 하시는 길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행정이다.
 2. 하나님의 통치적인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를 다루시는 길과 관련된다 — 갈 6:7.
 3. 우리가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지으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실 것이고 그분과 우리의 교통은 복원될 수 있지만 그분은 우리에게 대한 그분의 길을 바꾸실 수도 있다.
 4.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기 위해 자기의 죄들을 자백했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삼하 12:13, 시 51).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난 아들을 죽게 하셨고 다윗의 집에서 같이 떠나지 않게 하셨다(삼하 12:7-15).
 5. 하나님의 통치적인 징계 아래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분의 권능의 손 아래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벧전 5:5-7). 하나님의 통치적인 손을 거절하면 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문제를 만나게 될 것이다.
 6. 모세가 므리바에 있는 반석을 친 후에(민 20:10-12, 24, 27:14), 그는 하나님의 통치적인 손 아래 떨어졌다.
 - a.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실 때 화를 냄으로써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있어서 그분을 올바르게 대표하지 않았으며 그 반석을 두 번 침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과 그분의 신성한 경륜을 모두 범했다.
 - b. 이것 때문에 비록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의 동반자로 여겨졌음에도 불구하고(출 33:11) 좋은 땅으로 들어갈 권리를 상실했다.
 - c. 하나님의 백성에 관해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에서 우리의 태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에 따라야 하며 우리의 행동은 반드시 그분의 신성한 경륜에 따라야 한다. 이것이 그분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다.
 7. 다른 사람들에게 관대하기를 배우며 항상 용서하기를 배우라.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경솔하게 비난하고 다른 이들을 쉽게 유죄판결하며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관하여 계속 불평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대접받은 것을 계속 계산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통치적인 손 아래로 이끌 것이다.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엄격하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엄격하실 것이다 — 마 6:15, 18:23-35.
 - a.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며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유지하기를 배워야 한다 — 시 2:11-12, 86:11, 고후 5:10-11, 사 11:2.
 - b. 다른 이들이 어려움에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한 때이다 — 비교 창 14:14-16.
 - c. 오늘 많은 형제들이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가련한 상태에 빠져 있다. 그들은 과거에 다른 사람들을 너무 냉정하게 비난했다. 오늘 그들 대부분의 약함은 바로 그들이 과거에 비난했었던 바로 그 약함이다.
 - d.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적인 손을 피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관대해야 한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에게 관용하기를 배우기를 — 엡 4:32.
- E. 하나님의 왕국 안에는 왕국의 용서가 있다 — 이것은 행정과 관련된다.
1. 만일 우리가 이 시대에 다른 사람을 너무 냉정하게 대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왕국 시대에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 눅 6:38, 마 18:33-35.
 2. 만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인색하게 대하고 긍휼없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하나님도 장래에 우리를 똑같이 대하실 것이다 — 마 7:1-2.
 3.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들이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들을 인색하거나 냉정하거나 엄격하게 대하지 않음으로써 그날에 하나님께 긍휼을 받을 수 있기를 — 마 5:7, 비교 딤후 1:16, 18.